

핵심사업 역량 집중... ‘합병·매각·상폐’ 식품사 생존공식으로

확장 대신 슬림하게

〈中〉 고강도 체질 개선

CJ제일제당, ‘CJ푸드앤케어’ 매각 점유율 싸움보다 미래성장동력 집중 신세계푸드, 이마트 지배구조 단순화 3대 핵심 부문으로 사업구조 재편 매일유업, ‘매일헬스뉴트리션’ 합병 비용 효율화에 ‘셀렉스’ 실적 개선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재무 부담 속에서 주요 식품사들은 비주력 사업과 자산을 과감히 털어내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고강도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글로벌 식품과 바이오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지기 위해 전방위적인 자산 리밸런싱에 속도를 내고 있는 CJ제일제당이 대표적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사료·축산 회사인 ‘CJ푸드앤케어’ 매각을 완료했으며, 최근 전분당 사업 매각을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고 잠재 인수 후보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방증한다.

매각 규모는 3000억원 인파으로 추산된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가공해 전분과 물엿·포도당·과당 등 감미료를 생산하는 B2B(기업간거래) 소재사업이다.



지난 7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만두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전분당 사업이 매각 대상인 이유는 CJ제일제당의 핵심 사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옥수수를 대규모로 가공해야 하는 전분당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의 성격을 띤다. 설비 가동률과 생산 물량을 끌어올려야만 인건비,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의 고정비를 분산시켜 원가 경쟁력을 쫓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시장점유율이 곧 수익성과 직결된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국내 전분당 B2B 시장에서 4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1위 사업자에 비해 생산 및 유통 규모가 열세여서 원재료를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크다. 막대한 추가 자금을 투입해 점유

율 싸움에 나서기보다는, 사업을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시키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인천3공장·충남논산3공장 등 비핵심 부동산 매각도 병행되고 있다.

고강도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실적 악화와 차입금 부담이 자리한다.

CJ제일제당(CJ대한통문 제외)의 올해 2분기 매출은 4조19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619억원으로 18.4% 감소했다.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지난해 말 9조83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2조4476억원으로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성장이 제한적인 국내 소재 사업과 유류 자산을 단계적으로 정

리해 확보한 자원을 차입금 상환과 글로벌 K푸드 생산기지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흐름은 유통·식음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마트의 100% 완전자회사 편입과 자진 상장폐지를 단행하며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승부수를 던졌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과 실적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지난해 연 매출 2500억원 규모의 단체급식 사업을 과감히 매각해 1154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수익성 정체 국면을 벗어난 신세계푸드는 이제 베이커리와 식자재유통, 프랜차이즈의 3대 핵심 부문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인천 신규 공장 착공과 소지본 창

업 모델 확장을 통해 본업 경쟁력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을 잘게 쪼개던 과거와 달리, 흩어졌던 조직을 다시 본사 품으로 불러 모아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매일유업은 헬스앤뉴트리션 판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세웠던 자회사 ‘매일헬스뉴트리션’을 약 4년 7개월 만에 본사 직속 체제로 흡수합병했다. 운영상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인은 사라졌지만 대표 성인 영양식 브랜드 ‘셀렉스’는 혈당 관리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SNS 마케팅을 전개하며 오히려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1분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4.6% 증가했다. 매출 역시 469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 신장했다. 발표를 앞둔 2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식품사들이 자회사 합병, 사업부 매각, 자진 상장폐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살을 빼는 것은 쪼개기로 덩치를 키우던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고정비를 걷어내고 알짜배기 핵심 역량만 남기는 ‘합병·매각·상장폐지’는 이제 식품업계의 거스를 수 없는 생존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특별한 충격 없으면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유상대 한은 부총재 기자회견담화
“환율, 금리결정 중요 요소 아냐”
근원물가 상승률 2.6%으로 올라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율 안정이 금융통화위원회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지만 목표치를 웃도는 근원물가와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한 추가 인상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담회에서 “특별한 경기 충격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이클에서 추가 인상이 뒤이어 올 것이고, 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 하락만으로 통화 긴축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게 유부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환율 하락이 “한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약간의 여유는 주지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 기준 1415.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지난달 2일 종가(1555.8원)와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139.9원, 약 9.0% 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금통위의 공식 입장 역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금통위원 7명 모두 인상에 찬성했다.

금통위는 당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적어도 공식 문구상 7월 인상을 일회성 조정으로 규정하지 않은 셈이다.

물가 지표에서도 추가 긴축의 근거는 남아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6월 3.2%보다 낮아졌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5%에서 2.6%로 높아졌다.

겉으로 드러난 물가 상승 폭은 줄었지만 수요와 밀접한 기초적 물가 압력은 오히려 강해진 것이다.

경기 흐름도 추가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 분기 대비 3.6% 늘었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임금과 내수로 확산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오는 27일 금통위에서 곧바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늘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6만 8000명 감소하며 25개월 연속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다. 전체 성장세는 개선됐지만 경기 회복의 온기가 모든 산업과 연령층으로 확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27일 열린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유부총재는 오는 20일 임기를 마쳐 이번 금리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발언을 연속 인상의 공식 예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7월 인상으로 긴축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한은 내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부총재는 향후 인상 횟수를 미리 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성장과 물가가 어느 정도 경로를 그릴 건지다”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총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회에

서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승인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소득보전 중심 재분배 ‘한계’... 새 정책 필요

≫ 1면 ‘청년 실업률 ‘심각’...’서 계속

특히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인 가구 가운데 청년층(20~30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크게 늘었다.

가계의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상황에서,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새로운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탓에, 많은 청년들이 소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빚을 떠안고 금융사기에도 노출되는 사례까지 빈번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신용거래 등을 이용해 자본시장 투자에도 무리하게 뛰어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고심이 깊다. 우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